



**KOREAN A1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MEDIO – PRUEBA 1**

Tuesday 20 November 2007 (afternoon)  
Mardi 20 novembre 2007 (après-midi)  
Martes 20 de noviembre de 2007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However, you may use them if you wish.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 Sin embargo, puede usarlas si lo desea.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a)

오렌지 맛 오렌지

비읍은 편집부에 새로 들어온 신참치고는 아는 게 많았다. 그런데 그가 아는 건 조금씩 틀렸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보다는 사전이나 그 사전을 끼고 십 년 이상 먹고 살아온 우리를 의심하는 쪽을 택해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의 별명을 그 실수를 상징하는 말로 바꾸어 줌으로써 복수를 했다. 가령 이런 식이다.

5 "비읍 씨, 일 안하고 아침부터 거기서 뭐 해요?"

"차장님, 저 문방구 앞에 우산 들고 있는 아가씨 다리 참 죽여 줍니다. 가히 뇌살적이군요."

"비읍 씨, 이거 비읍 씨가 교정 본 거죠? 그렇게 뇌살 좋아하면 쇄도(殺到)를 살도(殺到)라고 하지 왜 그냥 뇌 썼어요?"

10 "하하하, 리을 선배님. 선배님 다리 역시 뇌살적이지만 저 아가씨는 춘추가 선배님 연치(年齒)에 비해 방년 이십 세는 적어 보이고 따라서 또 뭐냐, 윈스 여폰 어 타임 투기는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지금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한동안 그의 별명은 살도가 되었다. 한동안이란 그로부터 한 달 뒤 '홍미율율' 사건이 터지기까지.

여름철이 되고 고등 학교 야구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비읍은 제가 나온 학교도 아니면서 고향 고등학교라는 이유로 열렬히 응원을 하고 있었다.

15 인색하기 짝이 없는 그로서는 표 사서 야구장에 갈 일은 없었고 편집부 안에서 신문을 보면서 입으로 하는 응원이 전부였지만.

"우와아! 차장님. 어제 우리의 경상고 피처가 연타석 홈런을 짚습니다. 캐치는 6 타석 4 타구 4 안타. 유격수는 도루가 네 개. 결승 진출은 맡아 봤구만."

"이거 봐요. 비읍 씨. 그 학교가 자네 학교야? 그 동네는 그 학교 근처만 갔다오면 다 한 학교 출신이 되나?"

20 "헤헤. 차장님. 모르시는 말씀. 경상시야 한국의 영원한 구도(舊都) 아니겠습니까. 야구하면 경상, 경상 하면 야구지요."

듣고 있던 리을이 나섰다.

"그럼 동네 이름을 야구시로 짓지 그랬어요. 아냐, 비읍 씨 고향을 기리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비읍 씨를 야구 씨라고 불러 줄게."

25 어지간하면 질릴 법도 하련만 비읍은 천하 태평이었다.

"이거 사방에 적군의 노래뿐이니 완전히 사면초가(四面楚歌)일세. 오호 통재(嗚呼痛哉)라."

"비읍 씨. 하나 물어 볼 게 있는데 말예요. 사면초가에서 왜 적군이 초가를 불러요?"

"역시 리을 선배님은 여자라서 역사는 잘 모르시누만. 그게 말임다. 항우가 적벽 대전에서 유방에게 포위가 됐는데 말임다."

30 "적벽이 아니라 해하(垓下)겠지."

"차장님, 적벽이나 해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임다. 한나라 군사가 초나라를 포위하고 오래 있다가 보니까네 초나라 유행가를 다 배웠다는 겁니다. 항우가 듣다가 그 노래가 너무 슬퍼서 아, 졌다 하고 자살을 했단 말임다."

(성석제, <재미나는 인생 > 1997)

- 소설의 배경은 무엇인가?
- 소설의 시점은 무엇인가?
- 소설이 웃음을 자아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

1. (b)

살아 있는 날은

마른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5    사각사각 소리 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아도  
 단정하고 깨끗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10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 있는 연필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글을 쓰겠습니다  
  
 15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하겠습니다.

(이해인 [내 혼에 불을 놓아] 1979)

- 시의 어조는 어떠한가?
- 시에서 사용된 문학적 기법은 무엇인가?
- 시에서 '연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